

김명수 대법원장 총선 투표… “민주주의 통째 어려움 극복하자”



법조인 동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인 이혜주 씨와 함께 각각 한 표를 행사한 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서로 힘들 때일수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어려움을 민주주의를 통해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 전국 1만 4천330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